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5월 12일(금)  
(음력 4월 17일)

Пятница

12 мая 2017 г.

№ 18(11673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 전국에서 대조국전쟁 전승일을 기념했다. 러시아 대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크고 작은 도시에서 열병식과 불멸의 연대 행진 및 집회 등이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불멸의 연대>행진.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문재인, 대한민국의 제19 대통령

5월 9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10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1.08%인 1342만3784표를 얻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2개월여 만에 정권 교체의 성공이라고 한국언론들은 전했다.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는 역대 대선 중 최다 표차인 무려 557만 표 차이가 났다. 아울러 문 당선인은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표율 1위에 오른 반면 홍 후보는 TK지역과 경남에서 선전한 끝에 24.03%(785만2846표)를 기록하는데 그쳐 2위를 차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위를 기록한 지역이 없이 21.41%(699만8335표)로 3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220만8770표)로 4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201만7457표)를 얻어 5위에 올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지난 4-5일의 사전투표를 포함하여 모두 3280여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한국 평균 투표율 77.2%를 기록했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대한 취임식 대신 국회에서 약속한 취임선서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밝히고 선거전 기치 문구로 쓰였던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 올림픽 챔피언들 사할린 방문

오는 16일(화) 러시아선수연맹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한다. 전 러시아 자선프로그램 <올림픽 전설을 러시아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일환으로 올림픽 챔피언인 타치야나 카잔키나와 릴리아 누루트지노와(육상경기), 니나 스몰레예와(배구), 갈리나 쿠클레와(바이애슬론) 등을 비롯한 총 11명의 선수들이 홈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고르노사위드스크, 아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찾아 어린 선수들과 만남을 가질 전망이다. 이 유명한 선수들은 스포츠학교와 일반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스포츠 부문에서 자신들의 성공담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대중유소년스포츠 발전, 올림픽 가치관, 건강한 생활, 청년 중에서 체조와 정규 스포츠 훈련에 대한 매력과 차세대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전망한다.

## <기억합니다. 자랑합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전승절 기념행사에 2만여 명 모여

5월 9일 전국에서 대조국전쟁 전승일을 기념했다. 러시아 대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크고 작은 도시에서 열병식과 불멸의 연대 행진 및 집회 등이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침 정각 10시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다(승리) 광장에서 대조국전쟁의 애국가로 부른 <일어나, 큰 나라>노래가 들리자 제68군단의 깃발그룹이 러시아의 깃발과 승리의 깃발을 승리광장에 모셨다.

섬지역 주민들에게 전승절을 축하하며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72년 전에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싸움에서 종지부를 찍고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갈색의 전염병>을 막아냈다. 우리는 해방자인 참전용사, 노동전선 참가자를 자랑스러워하며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이들을 기리고 있다. 대조국전쟁에서 승리와 제2차 대전에서의 승리는 우리지역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소련 군대는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해방시키고 사할린주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올해 우리는 사할린주 형성 70주년을 맞이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전투기기와 여러 부대 군단들의 행렬은 인상적인 광경이다. 이날 승리광장에서부터 영예광장까지의 고리키 도로 보행길은 이를 관람하기 위한 수천 명의 시민들로 붐볐다. 조직자들은 이날 전승절 주요 행사인 열병식과 <불멸의 연대> 행진 관람에 약 2만 명이 참여한 걸로 보고 있다.

올해 전쟁 참전용사와 또는 노동전선 참가자인 조상의 사진을 들고 이들을 기리는 <불멸의 연대>행진은 5500여명으로 이어졌다 한다. 이들은 영예광장의 성화와 영웅추념비에 꽃을 헌화하고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목이 메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4년간의 장기전에서 민간을 포함한 소련사람 약 266만명이 사망했다.

게오르기 리분을 맨 수만명의 시민 모두가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기억합니다. 자랑합니다>란 말에 공감했다.

이날 크고 작은 행사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주내 곳곳에서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전승기념일은 승리광장에서 펼쳐진 큰 공연과 하늘 높이 솟는 불꽃놀이로 마감되었다.

(배순신기자)

## 극동 헥타르 문제로

지난 11일(목) 사할린주정부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배분 받은 극동토지 제반시설 구축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받은 토지의 남부를 집중적으로 도로를 공사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설계서를 지방자치체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지원금은 주예산에서 지출된다.

극동헥타르 법을 실시하는 동안 사할린 주내 토지배분에 대한 신청서가 1만549건이 접수되었다. 오늘 현재 2233헥타르에 대한 3130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극동헥타르 토지는 주로 사할린 남부에 위치한다. 코르사코브구역에서는 솔리비요브카와 오호트스코예, 포도로즈카 강가에, 아니와구역에서는 타라나이와 페스찬스코예 마을 부근에, 돌린스크구역에는 소콜 마을 근처에 집중해 있다.

정부는 이 토지에서 농축산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현재 배분 받은 극동토지에는 휴양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파악 중에 있다.

(주정부 자료에서)

## 새고려신문

##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에서 한국의 최고의 목판화가인 이철수 화백의 개인전이 열렸다. 첫 인사를 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화백은 넓은 마음에 속 깊고, 거리감을 주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란 걸 느꼈다.

- 화백께서는 해외 전시회 제안이 들어오지만 외국에 자주 나가시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화백 내외 분께서 사할린 전시 개막에 직접 참석하신 이유는요?

- 사할린은 한·러·일이 함께 관련된 역사의 마당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사할린 주립 미술관의 전시 초청을 받은 전후에 자료를 받아 보기도 하고 스스로 찾아 보기도 했습니다. 사할린과 관련한 제 이해가 많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동포사회의 역사도 시간에 떠밀려 흘러간 것이 많겠지만,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시를 통해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가 보낼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 사할린 전시의 주제는 '조화의 탐색 속에'( 조화를 찾아)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전시에서 뭘 보여 주고 싶으셨습니까?

- 개막식 인사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사할린-러시아와 사할린-한국의 미래는, 소통을 통한 상호 조화와 이해에 미래가 걸려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판화가니까 미술가의 눈으로 소통을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의 사람이라도 타인과 공감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지요. 정치는 그 일에 서툴지요? 예술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는 예술 교류를 통해 우리 누구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화전을 통해 한인들 뿐 아니라 사할린의 러시아인들이 작품에 공감하고 한국의 예술에 호기심이라도 갖게 된다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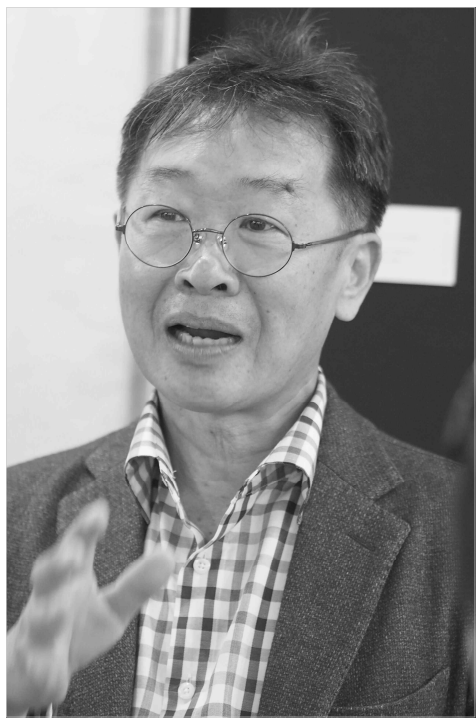
조화는 소통과 교류가 쌓이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시간의 무늬가 아닐까 합니다.

무얼 보여 주고 싶었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림 이미지에 글을 더해서라도 관객과 소통이 가능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 온 한 판화가의 의지! 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 이번에 작품 82개를 소개했는데 한 시리즈로 나오는 작품도 있지만 출품물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 미술은 대화의 수단이다

## 일북이 많은 이철수 판화가와의 인터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 사실 제 30여 년의 판화 작업을 80여 점으로 압축해 보이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작품을 선택해 보여 드리려고 고심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종교적인 작품은 많이 배제 했는데, 와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군요?

어제는 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에서 러시아 정교의 유물 들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게 많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러시아 정교회도 두루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쉽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중요했는데 생각보다 관객의 반응 수준이 높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한 셈입니다. 얼마 안되는 작품이지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언론인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더없이 고맙습니다.

- 전시회를 찾아온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선생님에게 여러 질문도 하고 소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시회가 성공적이라 보는데 관객들의 질문 또는 소감 표현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 자신은 러시아 사람이지만 작품에 새겨진 글을 읽으면서 울컥했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심리상담사 여성이 기억납니다. 대화 끝에, 심리 상담에 제 판화를 활용해

봐도 좋겠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제 작품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미술의 소통 능력은 확인되는 셈이지요? 사할린 전시에서 제가 기대한 소통에 작으나마 성공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서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 화백 작품의 주요 특징은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림이 먼저인가요, 글이 먼저인가요? 그리고 작품을 제작할 때 글을 먼저 쓰시는지 아니면 그림을 먼저 세기시는지요?

- 저는 미술이 '대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는 화가가 관객에게 이야기를 거는 거라고 믿지요.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이니까 글이 먼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은 이미지의 예술이기도 하지요. 그림과 글의 선후를 따지는 건 불필요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저로서는 글을 읽으면서 작품 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요.

- 사실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판화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 한국 사회가 5.18 이후 정치적 격변기를 맞고 있던 시기인 1981년에 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군사 정권의 폭압이 일상이던 시대였지요.

그 시절, 저도 청년기에 있었고, 사회 참여가 예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적 발언에는 판화가 제일 유용한 미술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새길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해서 폭넓게 보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판화를 선택했습니다.

80년대에는 제 판화가 학원가와 거리에 있었던 셈입니다만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판화를 너무 좁게 이해한 측면이 있지요.

지금은 판화의 아름다움이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고 사회적 역할도 훨씬 폭이 넓다고 믿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서울 출신이고 첫 개인전을 1981년에 하셨는데 1987년에 목판화가로 인정을 받았던 시기에 서울을 떠나 제천에 내려가셔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게 된 동기는?

- 처음에는 육망과 소비가 넘치는 대도시의 삶이 싫어서 30대 초반에 서울을 떠났습니다.

농사를 통해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를 조금 더 이해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요. 시골 마을로 이주해서 사할린 곳곳에도 있는 '다차'처럼 작은 텃밭 농사로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러시아 예서도 다차가 어려운 가정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한다지요? 이번 기회에 다차도 한 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농사를 지으면서 생명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정신을 깨어 있게 하고 하기 나름으로는 정신 정화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걸 실감하게 되기도 했지요.

아내와 의논해서 농토를 늘리고 좀 더 많은 농사를 짓게 되는 것도 그런 자연이 있어서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사는 삶의 가치에도 차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철학을 담은 작품이 이번 전시에 꽤 많이 보일 겁니다.

젊은 시절 첫 선택은 무모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찍 떠나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밭은 이제 저희들의 마음밭이기도 하지요.

- 이철수 화백님을 한국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사할린한인들은 잘 모릅니다. 소개하고 싶어서 선생님께 뻔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농사물을 파시기도 합니까? 농밭일에 도우시는 분도 계십니까?

- 사할린은 한국 사회와 아주 긴밀하지는 않지요? 사할린이 제게도 첫 방문이니, 사할린 한인 사회에 제가 낯선 것도 당연할 겁니다. 이제 제 이름을 아셨으니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 보시겠지요.

저희 내외가 짓는 농사는 다종품 소량 생산에 가깝습니다. 쌀, 콩, 고추, 참깨, 들깨, 무, 배추, 온갖 푸성귀들... 웬만 한 건 다 짓지요.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로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면 고구마 순과 감자가 속 자라 있지 않습니다. 귀국 다음날이 모심기로 한 날입니다. 농사 지으면 먼 외출이 좀 어렵지요. 제가 해외 여행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산물을 팔지는 않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나누고, 남는 것은 꼭 필요한 데로 보내지요.

요즘은 떠나있는 아들 내외와 딸아이가 가끔 농사일을 거들러 내려 옵니다.

몇몇 친구들도 다녀 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 내외 간에 조용히 일하게 됩니다. (7면에 계속)

# 이모저모

## 사할린 참전 노병들에게, 전승일 맞아 각각 5만 루블리를 전달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대조국전쟁 참전노병들과 <전쟁의 아이들(대조국전쟁 시 미성년들)>이 지역법에 따른 5월 9일 전승절을 맞아 연례 보조금을 받았다.

대조국전쟁 참전노병들에게는 5만 루블리, 노동전선 참가자 <포위된 레닌그라드의 주민> 가장 수여자 전 나치수용소 미성년포로에게 2만5000루블리, 전쟁의 아이들(1923년 6월 22일- 1945년 9월 3일 출생)에게는 2500루블리를 전달했다.

대조국전쟁 전승일을 앞두고 주사회보호부 전문가들은 주내 모든 구역들에서 80주년과 85주년을 맞이하는 참전노병들과 <전쟁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축하행사도 진행했다.

사할린의 장수인 축하도 계속된다. 5월에는 90주

년과 95주년 12명의 참전노병들이 생일잔치를 치르게 된다. 꽃다발과 선물과 함께 이들에게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축하문도 전달할 것이라고 주사회보호부 홍보실은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ие ветераны войны получили к празднику п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К празднику 9 Мая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дети войн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получили ежегодную денежную выплату.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еречислено п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участникам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лицам, награжденным знаком "Жителю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и бывши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 узникам фашизма — п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детям войны (родившимся в период с 22 июня 1923 года по 3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 по 2 500 рублей.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пециалист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ны торжествен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вручением подарков ветеранам и детям войны, отмечающим 80- и 85-летние юбилеи.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почетная миссия поздрав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долгожителей. В мае юбилейные дни рождения — 90 и 95 лет — отметят 12 ветеранов. Вместе с цве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им будут вручены персональные письмен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соцзащиты.

## 사할린주민, 소비품목 중 식품구입비가 증가

2016년에 사할린주민들의 식품구입에 대한 지출이 육류제품(한달에 2028루블리)과 어류제품(463,6루블리)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에 비해 우유와 유가공제품에 대한 지출액은 매월 938,2루블로 3,8% 증가되었고 과일과 열매는 3,9%(732,5루블리), 감자는 5,9%(194,2루블리) 증가되었다. 제빵제과에 대한 지출액은 매월 1101,8루블리, 채소와 수박, 멜론 등은 988,5루블리, 달걀은 155,1루블리까지 달했고 식물성 기름, 유지방 등에 섭취민들은 2016년 전 해에 비해18% 더 많이 소비했다. 이로써 평균 지출액은 매월 114,8루블리에 달했다.

(7면에 계속)

# 공감을 얻고 조화를 찾아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한국 이철수 목판화가의 개인전 열어

지난 5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한국의 이름난 이철수 목판화가의 <조화를 찾아>란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다.

개막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철수 화백은 러시아 사할린 언론들에게 인터뷰하느라 몹시 바빴다. 관심을 갖고 전시를 돌아본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전시회 큐레이터인 미술관의 국립극 동예술통전 전문가 하이 올가는 "사할린주 미술관은 <조화를 찾아>라는 이철수 목판화가의 개인 전시회를 열면서 이 화백의 잘 알려진 독특하고 개성적 스타일과 양식이 드러난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며 "전시회에 발표한 82점의 목판화 작품은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이철수 화백이 35년간 제작한 것으로 예술가로서의 창작의 혁명과 민주화를 향한 옹호와 동양적인 판화의 형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이철수 화백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목판화 작품에는 이 화백의 예술적이고도 개성적인 창작과 삶에 대한 인식이 존재의 신비 속으로 침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주 문화기획자는 "그(이철수 화가)의 그림에서 '조화와 평화'를 만끽하며,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진정성이 넘치는 희망을 보고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이철수 판화가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판화가가 되어, 그의 작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장하고 싶은 콜렉션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며 이철수 화백을 소개했다.

이철수 화백은 인상적인 인사말을 전했다.

"순수한 인간의 안목과 평범한 삶을 사는 생활인의 감수성으로도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쉬운 판화작품'을 만드는 것이 제 오랜 고민이고 꿈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삶과 고스란히 일치하는 그림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쉽고, 그러면서 지혜도 깊은 아름다움의 한 세계를 희망하는 거지요. 그건 평범하고 성실한 삶 안에 귀한 인품을 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일러주는 인생의 바른길이기도 합니다.

발을 일구듯 목판을 새기며 삽니다."

그의 작품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관객과의 소통을 바라는 소망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좀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는 꿈이 그의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인사말에서도 느껴졌다.

이날 미술관 알렉산드르 부리카 관장은 관람객들을 따뜻히 환영하고 이철수 화백의 창작을 높이 평가하고 이 화백과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철주 문화기획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철수 판화가의 전시회는 6월 중순 까지 열려 있을 것이니 많은 동포들이 찾아서 한국 화가의 생각에 공감할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처음 한국관광객 1700여명 태운 크루즈배 사할린 입항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9일(화) 사할린 코르사코브항구에 <코스타 빅토리아>크루즈배가 입항했다. 롯데관광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한-러-일 전세선은 2일 속초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를 들른 후 새로운 기항지를 찾은 끝에 한국관광객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할린에 입항했다.



1년 전에 사할린관광상품을 결정된 롯데관광은 이곳<베들레헴>회사(사장 장용운)를 오페레이터로 삼고 사할린주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이번에 1700여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사할린을 찾았다. 이들은 한정된 시간 안에 유즈노사할린스크과 코르사코브를 돌아봐야 했다.



관광객들이 5월 9일 대조국전쟁 전승기념일에 사할린을 찾아 주최 측과 사할린 측에서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모든 문제들이 무사히 해결되었다고 주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사할린은 아직까지 관광객 유치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롯데관광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관광객의 안전이 먼저>라는 목표는 지장없이 달성했다.

이날 관광객들은 사할린한인들의 슬픈 역사이야기가 담긴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도 찾고 한인이야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곳에서 주한인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사할린한인이주사에 대한 비디오와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진전도 감상할 수 있었다.

러시아 현지인 문화와 역사는 주향토박물관, <승리>전쟁기념관과 성탄 성당을 견학할 때 짧게라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관광객들은 레닌광장에 서있는 레닌동상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한편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나선 사할린주정부는 이번 크루즈 준비로 조직자들에게 많이 협조한 것도 사실이다. 지원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새고려신문의 특호발간이었다. 5월 5일호는 이번에 두 가지 호가 동시에 발간되었다. 2000부수의 칼라 특호는 한국관광객들에게만 배포되었다. 특호에는 사할린 소개자료와 사할린한인이주사, 사할린의 낚시, 요리 등에 대한 기사도 실렸다.

일부 관광객들은 대조국전쟁 이야기를 듣고 영예광장에 있는 성화에 꽃을 헌화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크루즈들이 언제 다시 사할린에 입항할지 모르지만 사할린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 사할린에 같은 피의 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의 역사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날 한국어가 소통이 되는 50여명의 사할린 가이드가 한국 관광객

들을 안내했다. 이들 거의 모두는 이러한 한국어가이드 경험이 처음이었다. 이를 위해 가이드 50여명은 2개월간 사할린국립대 관광전문학교에서 가이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본문을 익혔다. 수강생 중 대다수가 중년의 동포였는데 그들에게는 고국에서 온 같은 혈통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다고들 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사.할.린.

##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규

(전호의 계속)

"나로서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화태기환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 문제는 우리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니 놀라워요. 아주 걸출하단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화상으로 사할린과 일본하고 연결을 해서 강의를 하고 회의도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눈물이 나요."

스무 살 이후 평생 한 길만을 걸어온 구십 노장의 열정과 겸허함이 담긴 뜨거운 눈물 앞에서, 나는 한편 부끄러웠고 또 한편 죄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보다 나를 압도한 것은, 자기만의 고독에 파묻히는 대신 타인의 고독까지 끌어안고 살아온 한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선생이 어떻

게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견디면서까지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었는가를. 그건 바로 같은 동포, 아니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제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조직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해도, 결코 사할린 한인의 문제를 '가슴 대 가슴'으로 풀어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 "처음에는 좋았지, 지금은 죽을 일이 걱정이야"

영주귀국자 한문형 · 김임순 부부

사할린 한인에게 1994년은 오래 기억될 만한 해이다. 그 전까지 말만 무성했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놓고 한일 양국이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은 아파트 지을 땅을 제공하고 일본은 건설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곧바로 예산을 책정한 데 반해 한국이 부지선정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자, 영주귀국의 꿈에 부풀어 있던 한인 사이에서는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 임대아파트 1백 가구를 마련하여 일부만이라도 먼저 입주하게 했고, 그 덕분에 한문형 김임순 부부는 남보다 몇 년 일찍 귀국하여 등촌동 임대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란 아이

1933년에 태어난 한문형 선생은 어릴 적 일본인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또래 친구들과 싸운 기억이 대부분이다. 다행이랄지 불행이랄지, 어린 문형은 치고 박는 데 소질이 있어 맞는 쪽보다는 때리는 쪽에 가까웠다.

"그땐 왜 그렇게 애들을 때렸는지. 크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아마 내 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럼 그 아이 아버지가 교장한테 전화한단 말이요. 누구 집 아들이 때렸다고. 그러면 교장이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실컷 잔소리를 하지. 그런데 들어봤자 (아버지는) 일본말을 몰라. 아무튼 그때마다 아버지가 몽둥이 가지고 나를 때렸어. 두드려 맞으면 서 나는 속으로 그랬지. '하라쇼!(좋았어) 이노무 새끼 핵고 끝나고 갈 적에 보자!' 정말로 이튿날 그 아이를 눈에 파묻고 그랬다니까. 하하.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일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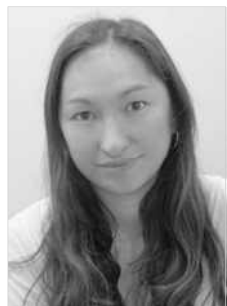
기껏해야 열 살 남짓한 아이의 마음에 꿈하게 걸려 있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식민지 시대를 지배하는 암울함,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피지배자로서 겪는 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것이였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동네 이웃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으니.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Итак, мы с вами рассмотрели какие сословия были в Чосон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ми. Кроме них, большинство, разумеется, составляли сословия не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е, то есть те, кто платил налоги. Делились эти сословия на три группы – торговцы, ремесленники и крестьяне. Все они назывались одним словом – янмин, что в переводе означает «добрые люди». При этом внутренних барьеров между этими сословиями не было – крестьянин легко мог стать ремесленником или торговцем, и наоборот (янбаном, конечно, стать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из этих трех сословий было, разумеется, крестьянство. В странах Азии традиционно относились с большим уважением к труду крестьян, дворянину не зазорно было заниматься трудом в поле (в отличие от торговли), а сам ван каждый год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ритуале начал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 Власти все время напоминали о том, что земледелие – осно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 страна держится на плечах крестьян. Этим Корея (да и вся Азия) очень отличалась от Европы, где к крестьянскому труду было презр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дворянства.

Тем не менее, несмотря на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элиты к крестьянству, это не мешало ему оставаться самым бедным слоем населения, более всего подверженному голоду и нищете из-за неурожаев, ненастий, заморозков. Это было неизбежно –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обществе крестьянское большинство всегда было самым незащищенным слоем населения. Впрочем в Чосон были и зажиточные крестьяне, имевшие даже своих ноби (рабов) и владевшие землей.

Часть крестьян работала на своей земле, но большинство являлось арендаторами. Земле-владельцем был обычно янбан, зажиточный крестьянин, или 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 Корею был недостаток пахотных земель и переизбыток рабочих рук, поэтому арендная плата была очень высокой, доходя до половины урожая. Кроме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крестьянин также платил различные налоги в казну государства и нес трудовую и воинскую повинность.

При этом государство относилось к крестьянам достаточно лояльно. Власти стремились свести налоги к минимуму, сделать налоговую систему гибкой. Налог устанавливал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змера надела, качества земли и урожайности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инспекторы постоянно пересматривали величину налога. С целью учета площади и плодородия земель в XV в. был создан земельный кадастр, который также постоянно уточнялся и пересматривался. Власти проводили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е преследовали, прежде всего, фискальные цели.



Рисунок 1. Чосонские крестьяне (농민)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 Сахалин принимает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из Евразии, Америки и Австралии

11-13 мая 2017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Фонд KOWINNER (ВСЕМИРНЫЙ ФОНД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Эт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ыла основана в 2007 году в Австралии. Фонд осуществля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консолидацию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развитие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и объединяет тысячи женщин 30 стран планеты.

В работе нынешней юбилей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из 12 стран мира,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Основная тема конференции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настоящее). Основными докладчиками с сахалин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ят к.и.н. Юлия Дин,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

цы» Пак Сун Ок, руководитель телепередачи «Урималь бансон» КТВ Ким Чун Дя, к.п.н. Эльвира Лим и др.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ут заслушаны лекции именитых людей, состоятся заседания по секциям.

**Наша справка:** Фондом осуществлен ряд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охватывающих проблемы семьи, женщин и детей, улучшение их соц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овышение статуса женщин в обществе, поддержка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Под эгидой Фонда проведены пят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мира: в Австралии, Гонконге, Румынии, Австрии и США.

Президентом Фонда является Ли Ген Хи –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встралийск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Виктория Бя.

##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ой ксилографии откры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редставил сахалинскому зрителю творчество И Чоль Су, одного из интереснейших мастеров современной печатной граф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Ксилография, да и в целом любые виды гравюры, не в пример прошлым годам редкая гостья в выставочных залах. Это трудоемкое, как и в старину, ответвление графики лишилось вним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а потому оценить ее неисчерпаемый потенциал можно, лишь обращаясь сегодня к иному опыту. Опыт И Чоль Су потрясает и жизненными коллизиями, и достигнутыми вершина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основой которого стала его причастность к событиям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Более 80 ксилографий представляют 35-летнюю жизнь И Чоль Су в искусстве. Жизнь эта течет весьма извилистыми путями.

Его биография являет собой "путь преодоления", потому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тягу к рисова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н не получил. Первоначально учился тонкостям ксилографии у мастера, резчика по дереву О Юна, а затем начал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В его лице мы сталкиваемся с талантливым художником-самоучкой, достигшим триумфа, что, впрочем, не выпадает из традиций востока: настоящее мастерство приходит от учителя и от самого себя. Последние тридцать лет И Чоль Су живет в деревне Бэ-гун-мён, сочетая занятия искусством с работой в поле. Но так он жил не всегда. В пору пылкой молодости, в 1980-х, он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от накала студенческих волнений в Корею, пафос которых был направлен против тогдашнего диктаторского режима, з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траны. У этой революции были свои "окна РОСТА" на стенах домов в 80-е, на улицах – гравюры участника движения "За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И Чоль Су, который выражал недовольство, требо-

вания и надежды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плакатно броским, экспрессивным языком. А к концу 80-х произошел духовный перелом. Кто-то назовет этот момент кризисом, кто-то катарсисом, возвращением к себе, когда художник покинул Сеул и уехал в деревню.

—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он нашел себя в созерцании, черпая вдохновение в природе и простых людях, которым нужны мир и труд. Символом е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ерерождения можно назвать картину "О, эти холодные цветы!", в котором отражен исконно мирный менталитет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тремление его к созиданию. Можно провести аналогии с Достоевским и Толстым, потому что он тоже выбрал путь ненасилия, любви и счастья, — рассказывает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Ольга Хай.

Название для выставки И Чоль Су видится довольно общим для всей культуры Востока — "В поисках гармонии". Творчество "бунтующего" периода на выставке занимает малую часть, от прошлого он не отрекается, но живет здесь и сейчас. Агрессивный цвет перешел в тихое свечение белого листа, напор брутальных образов — в тончайшую геометрию линий и пятен. Те, кто придут увидеть поиски гармонии от И Чоль Су, получат удовольствие несказанное. Притом, что корейско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в разных ипостасях в музейных залах не переводится, притом, что за плечами художника обширный опыт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ведь ксилография в Корею развивается с VIII века), с И Чоль Су гарантирована радость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взгляда на старые вещи. Он наследует и развивает традиционные ц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графики — в утонченной манере письма, собирая картины из мелких деталей, сопровождая их философско-лирическим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которых, как в капле воды,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 замысел: "Работа есть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Если вы не чувствуете, как жизнь насыщает вас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значит, вы живете напрасно", "Нежно любите мир со всеми его мелочами", "Когда мы вместе идем твоим путем, его следует назвать нашим". А некоторые сюжеты и вовсе искусно "вызывает" из иероглифов по листу, так что его картинку можно смотреть и читать с равным успехом.

Вглядываясь в его ксилографии, вы будете неизменно улыб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каждый сюжет осеян мягким юмором автора. Вот стоит на вершине обширного поля крошечный корейский мужичок с мотыгой, а картина называется "Я выпил. Надеюсь на понимание". Списано с природы, кивает автор: живу в деревне, и иногда можно видеть такую картину утром. А пол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увеличенный отпечаток пальца художника... Как видно, тематика его листов определена буквально по принципу "что вижу, то пою". Нетипичный "художник-крестьянин" И Чоль Су не особо верит во вдохновение. И впрямь, если бы крестьяне, выходя в поле, полагались бы на эту эфемерную иллюзию, их семьи сидели бы голодными. Художник выращивает рис, овощ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здает гравюры о мире и труде, что никогда не утратит ценности для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Он напоминает о главном — о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как главной звезды в галактике, вечной реке и грядущем цветении абрикоса...

И Чоль Су создал несколько серий ксилографий, в которых стремился "переложить звук на бумагу". Впрочем, и в других его работах, напрямую к теме не относящихся, вы обязательно услышите, сколь они пронизаны музыкой. Так, в развитии нотную линейку складываются траектории рабочего дня крестьянства ("Наш путь") и ("Полдень, омытый потом"), клубочком скрипичного ключа свернулось движение ("Проложив путь вчера, сегодня бегу"). А музыкант откроет четкость ритмов в вихре черных треугольников на картине "Пение птицы". Это музыка шелеста листьев, ообразившая диалог художника с деревьями. Каждый зритель, по воле автора,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я на месте придуманного им героя, и тогда картина становится актом сопереживания.

И Чоль Су — один из тех авторов зарубежья,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для себя открытие России с Сахалина.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было и будет крепким манком для притяжения сюда мастеров культуры из обеих Корей. В творчест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силографа красной нитью проходит мысль, что и человек, и страна, пережив страшные катаклизмы, способны дозреть до мудрого умиротворения, тем и спасаются. Для художника "ностальгия, воспоминания, боль и печаль являются способами понимания красоты".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ун Чжэ Ин избран президентом РК

9 мая прошли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Граждане РК проявили высокую активность на выборах.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участки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посетили 77,2% избирателей, включая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досроч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состоявшемся 4-5 мая. Это самая высокая явка за последние 20 лет. Победителем выборов стал кандидат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Чжэ Ин. За него свои голоса отдали 41,1% избирателей. У его основного соперника из партии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Хон Чжун Пхё - 24% голосов. У кандидата от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Ан Чхоль Су - 21,4%, у Ю Сын Мина от партии Парын и Сим Сан Чжон от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6,8% и 6,2%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общем, в ходе выборов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признаны 135.733 бюллетеня, 9 млн 670 тыс. 802 избирателя 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я в выборах. Наи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Мун Чжэ Ин получил в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 64,84%. Затем следуют Кванчжу - 61,14%, Чолла-Намдо - 59,87%. В Сеуле уровень его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ил 42,34%.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официально приступил к своим обязанностям. 10 мая Центризбирком в 8 часов утра провел общее засед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победа Мун Чжэ Ина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была подтверждена. В Центризбиркоме управляющему делам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Ан Гю Бэку был вручен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факт избрания Мун Чжэ Ина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он получает полномочия верховного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вооружёнными силами страны и находится под охраной Управ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 Мун Чжэ Ин приступил к обязанностям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в РК 8 мая, самым желанным подарком являются деньги. Опрос на данную тему был проведён среди 1.848 человек. Респонденты могли выбир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62,4%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намерены подарить родителям деньги на личные расходы. 52% заявили, что хотят организовать совместный ужин с семьёй, а 23% предпочли сделать какой-нибудь подарок. На тему желаемого подарка были опрошены также 890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50 лет,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Дня родителей. Их попросили выбрать только один подарок.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оказались деньги. За них высказались 38,1% мужчин и 48,6% женщин.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родители предпочитают получать деньги, на которые они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то, что им нравится. Во втором месте совместный ужин с семьёй, а на третьем путешествии.



## В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в РК чаще всего дарят деньги

В РК меняется структура иммигрантов. В РК меняется структура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и работающих в стране.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ьях часто работают оба супруга. Поэтому молодые иностранки привозят в РК своих близких, чтобы последние помогли им с воспитанием и уходом за малолетними детьми. Данная тенденция начала резко развиваться. В этой связи шесть лет назад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РК ввели визу для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ностранцев, вступивших в брак с гражданами РК. Эта виза выдается на максимальный срок до 4 лет и 10 месяц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данной визе в РК пребывало 32 тыс. вьетнамцев. З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лет эта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более, чем в 13 раз. Показатель относительно филиппинцев вырос в 2,5 раза, камбоджийцев в 30 раз.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ьетнамцы заняли второе место после китайцев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в РК, отодвинув граждан США на третье место.

## В РК меняется структура иммигрантов

Вместе с женой-японкой - тогда так можно было выехать из СССР, он в 1958 году обосновался в Токио. Там он с тремя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начал борьбу за возврат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 создал общество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Живя только на т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что выделялись его жене-японке, семья экономила на всем. Пак Нохак из этих скромных средств ничего не тратил на себя, вплоть до того, что он вовсе не пользовался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и ходил по учреждениям пешком. Испытывая тяжёлые материальные затруднения, он начал готовить материалы о положении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ев для парламента Япо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 СССР и Юж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для ООН. И всю свою жизнь он посвятил эт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RKI)

##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Пак Нохаку

25 апреля 2017 года в здании музея истории жертвам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строенн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Мира в г.Пусан, в присутствии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уроженцев Сахалина был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т памятник Пак Нохаку, инициатору борьбы за возвращ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еобходимые средства на памятник были собраны из сбережений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емьи Пак Нохака, а также многих добровольных пожертвований сахалинцев. Памятник был передан в дар Музею истории жертвам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для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ей экспозиции. На церемонии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фонда помощи жертвам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им Енбонг, сын Пак Нохака г-н Пак Чанпо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won Генсек. Выступающие отметили заслуги Пак Нохака, этапы его трудной борьбы, а также вспоминали отдельные яркие эпизоды его жизни.

Кто такой Пак Нохак? Он родился в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букто в 1914 году, и п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1943 году попал на Сахалин, оставив жену и троих детей в Кореи,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пос.Быков.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 результат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японцы вывезли всех японцев с Сахалина, а корейцев бросили на произвол судьбы.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ступило, но корейцам, оста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е,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Слухи о том, что г-н Пак Нохак в Японии веде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ились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и люди стали ему писать письма, чтоб их затем передали родственникам в Южную Корею. Г-н Пак Нохак пересылал полученные им письма своему старшему сыну г-ну Пак Чанкю, жившему в Южной Кореи, а о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уточнял адреса получателей - ведь они могли поменять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передавал им долгожданные письма. Ответные письма шли таким же образом, но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г-н Пак Нохак сразу по приезду в Японию организовывал встреч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з Сахали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ии, а с 1982 года сахалинцы проездом через Японию стали виде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и в 1990 году впервые самолет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землился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ну Пак Нохаку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сведения более 7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они стали основой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ле многих мытарств ему удалось рассказать о полож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ногим официальным органам. Г-ну Пак Нохак также удало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диопередачи KBS для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некоторые впервые узнали о судьбе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Его мечта о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а воплощаться в 2000 году.

Исследование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г-на Пак Нохака провод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и историки в послеперестроечный период в основном на основе источников, изданных в японски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У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стретились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г-на Пак Нохака, и смогли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узнать о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сле начала массовой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ногие, кто помнил об его огром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рад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ысказывались за увековечение его памяти. Идея навстречу этим пожеланиям, Все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епатриир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чала движение за сбор средств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амятника Пак Нохаку и исполнила волю и жела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ак Нохак за его заслуги в деле возв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гради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градой. Он умер 1988 году и похоронен на своей родине.

Ин Мухак (Пхадю, РК)

## 19 мая в 18:30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Ночь в музее» в мал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выступят Янина Гимро и Роман Хе.



Любимый многими слуша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ий дуэт представит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Храни меня, мой талисман», посвященную творчеству Александра Сергеевича Пушкин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2-36-43, 72-37-38.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праздновала 72-ую годовщину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Погода 9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далась, как по заказу, - тепло, солнечно, несильный ветерок шевелил полотнища флагов. У перекрестка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и улицы Комсомольской назначен был сбор участников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Со всех концов города к этому месту ехали и шли люди с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защитивших Родину и весь мир от фашизма.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андр Антипов встал в строй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с фотографией своего деда Константина Петрука.

- Он начал войну в Одессе в 1941 году,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обороне Севастополя,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Антипов. - Прошел всю войну. В мае 1945 года танк, на котором воевал мой дед, был подбит в бою на окраине Берлина. От полученных ожогов он умер в госпитале.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Александр Антипов считает обязательным.

-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мы помним историю своей страны, понимаем, кто мы и откуда, - считает он.

Валентина Борисова и Наталья Никишова пришли с портретом своего дяди и деда –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ладимира Никишова. Он начал воевать с июня 1941 года. Исполнилось ему тогда всего 18 лет. Пять раз был ранен. Отличился во время освобождения Польши. 25 января 1945 года взвод младшего лейтенанта Никишов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переправился через Одер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Бреслау и приня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оях за захват и удержание плацдарма на западном берегу, отразив шесть немецких контратак. В тех боях Никишов лично подбил два вражеских танка. За мужество, отвагу и героизм он был удостоен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сле войны Владимир Никишов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переехал на Сахалин. Скончался в 1970 году.

-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 знак того, что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помнить и чтить тех, кто отстоял нашу Родину, - сказала Валентина Борисова.

По прогноз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акции, в ряды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олжно было встать около четыре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 деле их оказалось гораздо больше – семь тысяч.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сстановили традицию – отмечать главный весенний праздник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свыше 13 тысяч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на самы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ледних лет. А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Дня Победы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60 тысяч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Для главных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 ветеранов –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обустроили две трибуны у постаментов с боевыми орудиями. Отсюда они могли с удобством наблюдать за разворачивающимся на площади событиям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выхода знаменной группы. Над площадью торжественно проплыли два полотнища – Фла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легендарное Знамя Победы. Парадные расче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с праздником поздравил командир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Андрей Мордвичев. Над площадью разнеслось могучее «Ура!». Под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залпы сводный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Гимн России.

- 72 года назад наш народ поставил точку в самом страш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остановил и уничтожил «коричневую чуму», которая несла угрозу всему миру, - сказа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 Мы гордимся воинами-освободителями, тружениками тыла, скорбим о павших и свято чтим их память. Побе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сыграла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в истори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освободили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и положили начало образован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ее 70-летие.

Слова искренне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дресо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етеранам, усилиями которых был создан фундамент сегодняшних достижений.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и способны дать мощный отпор любому врагу. Сегодня они продолжают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граждан, успешно борются с угрозами глоб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включ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рроризм.

- Желаю вам, все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мира и благополучия!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завершая выступление. - Слава Солдату - Победителю! Слава Великой России! С днем Победы!

Затем перед ветеранами, печатая шаг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арше, прошли парадные расчеты. За ними,

урча мощными моторами, двинулась боевая техника - бронетранспортеры, машины связи,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Град» и «Ураган»,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истемы «Рапира» и «Гиацинт».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завершились. Ветераны с помощью юных волонтеров разместились в автобусах 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площадь Славы. По пути их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Плотной стеной они выстроились на тротуарах вдоль улицы Горького 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встречали колонну победителей.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и венк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Собравшиеся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павших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 День Побед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участники крупнейшей в истории региона туристической групп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9 мая две тысяч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ибыли в островной край на круизном лайнере «Коста Виктория», принадлежащем компании «Лотте Тур».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осмотрел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вязали георгиевские ленты и изъявили желание посетить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еще раз.



Как отметил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Шевченко,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б этом крупнейше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туристическом визите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еще год на встрече директора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митрия Хана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компании «Лотте Тур Девелопмент Ко» Пек Хён.

- Понятно, что одномоментно принять так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 серьезное испытани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огромн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разработана интересная турпрограмм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были открыты курсы по основам экскурсоведения, слушателями которых люди, прошедшие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Для перемещения туристов подготовили около 60-ти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автобусов, - рассказал подробности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В порту Корсак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стретили хлебом с солью и народными песнями. Вскоре состоялась и первая обязательная остановка - на корсаковской горе Печали. Здесь в 2007 году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монумент из металла в память о раздел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ьях, которые испытали множество тягот и лишений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Сахал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уристы побывали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посетил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 православный храм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осмотрели военную технику 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и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поездка. Мои родные жили и работали здесь много лет и, конечно, увидеть эти места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для меня было очень важно,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И Ен Сук. Молодая женщина впервые посетила область и отметила, что узнала немало новой для себя информации.

Так как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турис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о ограничено одним днем, то показать им вс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не удалось. Поэтому, как отмет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ездки, многие из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изъявили желание посетить её еще раз и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жизнью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 Любительский лов симы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нется 20 мая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а комиссия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вылова) анадромных видов рыб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юбительский лов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на четырех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ных участках. Первый – на реке Урюм от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до точки в полутора километрах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Второй – на реке Тамбовке. Его границы - от устья до точки в двух километрах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Третий участок на реке Лютоге. Он простирается от притока Укус до притока Каменистый. Четвертый лицензионный участок организован ООО «Олимп» также на Лютоге. Его границы - от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координаты 142°48'16"; 46°78'40")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до притока Счастье.

Даты окончания рыбалки на разных участках - в период от 10 до 25 июня. Сроки лова могут быть скорректирова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дходов рыбы.

##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ублич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проекту отчет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за 2016 год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16 мая в 16.00 в Большом за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9.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проекта отчет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 ходе слушаний выступ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и расскажут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исполнения бюджета в 2016 году,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зенных средств. Затем начнется обсуждение предложений и вопросов, поступивших о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размещены по адресу: <http://openbudget.sakhminfin.ru/Menu/Page/504>.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слушаний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в эфире местных телеканалов «ОТВ-Сахалин» и «ОТВ-Домашний», а такж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 адресу: <https://www.youtube.com/watch?v=kzYHmQJ0GxA>.

## В этом году услугами МФЦ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почти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итог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Владимире Пути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означена регионом с высо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по принципу «одного окна».

Сахалинский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вышел в лидеры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показателям: каче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персонала, минимум ожидания в очереди, удобный график приема клиентов, большой перечень услуг.

Как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связи Сергей Попов, количество услуг,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в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ах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ейчас их 312 видов. В 2016 году предоставлено более двухсот тысяч услуг, что на 36% больше, чем в 2015. Кроме того, МФ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илот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по приему документов на оформ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их и заграничных паспортов, в регионе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с УМВД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данных услуг в МФЦ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 Задача МФЦ - избавить население от бумажной волокиты, упростить процедуру полу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За 4 меся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лиентами МФЦ стали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96% заявителей дали работе центра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Это очень радует.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к лучшем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ереч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будет расширен. Сократится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в очереди,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Поп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면의 계속)

-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 저서도 많이 편찬하셨네요. 무슨 내용의 책들이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 책은 화첩이나, 전시 도록이 많습니다. 판화가로 활동을 시작한지 30년 된 시점에는 <마음에 새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판화 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그 봄꽃 소식해라>를 냈네요. <대중경>을 판화로 해석한 연작 판화집입니다.

그 밖에 제 판화에 제가 산문을 써서 곁드린 책도 있고, 제가 매일 저녁 홈페이지 회원들께 보내는 <나뭇잎 엽서>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 들도 꽤 있습니다.

물고 대답하는 식으로 만든 책도 한 권 있네요.

외국에서 번역한 책도 몇 권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책도 쓰시고 도우미 없이 직접 농사하시면서 판화를 새기고 책을 쓰시고 진보적 예술단체 회장으로 하시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빛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은 사람이지요. 일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 미술은 대학의 수단이다

## 일복이 많은 이철수 판화가와의 인터뷰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 선생님 내외를 지켜보면서 선생님께서 여사님을 챙겨주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서로 많이 의지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중년의 부부를 한국 사람 중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 그럴 리가요? 많이 들 그렇게 사시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곁에서 챙겨주는 아내에게 많이 기대고 삽니다.

사실 <같이 멀지요?>, <아이들 뒤따라 올텐데...>

그 두 작품은 결혼 20년과 30년 무렵에 제 아내에게 드리는 그림으로 새겼습니다. 알고 보시면 좀 새삼스러운 데가 있을 겁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아내에게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런 미안한 마음이 담겨있지요.

알고 일어난 아내의 뒷 모습을 새긴 판화도 있지요? 역시 그런 마음을 담았

습니다.

자식 키우고 사는 부부들이 나눌 법한 이야기가 담긴 셈이기도 하고요.

부부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나이 먹는 건 좋은 일이지요.

모자간게 많은 남녀가 서로 채우고 지켜주는 게 부부 사이이기도 하고...

- 물론 사할린에 대한 소감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 며칠 안되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주마간산이실 겁니다.

지혜롭고 의지가 굳은 사할린 동포들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어머모로 이만큼 일구어 오신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좋은 사람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가능성이 많은 미래의 땅이라는 생각도 들고.

다녀보니 비 내린 뒤에 날씨가 쌀쌀해져서 밤길에는 따뜻한 옷을 찾게 되더라

고요.

역시 추운 곳이구나 했습니다.

자작나무가 삶의 곁에도 있고 죽을 곁에도 있는 땅.

여름이면 백야가 오고...

- 새고려신문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모국어와 한글을 지켜온 사할린 한인 문화의 보루같은 언론이지요?

혁명과 개방과 변화의 시기를 사할린 지역과 사할린 한인들과 함께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하시게 되길 기원합니다.

사할린에서 한민족의 자리가 보석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어야 할텐데...

- 선생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습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기자가 이야기 나누었음)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그와 함께 평균 1인당 기본식품의 소비량은 모호한 상태로 2016년에 주민들은 한 달을 기준으로 감자는 1인당 4킬로그램으로 소비량이 증가했다. 또한 채소와 수박, 멜론 등은 7,4킬로, 달걀 19개, 식물성 등 1킬로이다. 그와 함께 제빵제과의 소비는 매월 6,6킬로까지 감소되었고 과일과 열매는 4,9킬로, 육류와 육가공제품 6,7 킬로, 우유와 우유제품 16,1킬로, 어류와 어류가공제품은 1,9킬로, 설탕과 과자제품은 2,1킬로 감소되었다.

식품소비수준은 주민들의 생활소득에 따라 최고 소득층의 그룹에서는 제빵제과 제품, 감자, 달걀, 육류와 우유제품의 소비량은 최저 소득층의 그룹보다 높았다. 채소와 수박, 멜론 등, 과일과 열매류에서 그 차이는 2배 이상이라고 사할린주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больше тратиться на еду

Расходы сахалинцев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увеличились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в 2016 году.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ляют мясная (2028 рублей в месяц) и рыбная продукция (463,6 рубл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5-м затраты на покупку молока и изделий из него возросли на 3,8% и составили 938,2 рубля в месяц, фруктов и ягод - на 3,9% (732,5 руб.), картофеля - на 5,9% (194,2). Расходы на хлеб выросли до 1101,8 рубля, овощи и бахчевые - 988,5 руб., яйца - 155,1 руб. в месяц. На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и другие жиры в 2016 году островитяне потратили на 18%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 в среднем затраты составили 114,8 руб. в месяц.

Вместе с тем динамика среднедушев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основн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неоднозначна. Так, в 2016 году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больше стали потреблять картофеля - 4 кг (в расчете на 1 человека в месяц), овощей и бахчевых культур - 7,4 кг, яиц - 19 штук, масла растительного и других жиров - 1 кг. Наряду с этим сократилось потребление хлебной продукции - до 6,6 кг, фруктов и ягод - 4,9, мяса и мясопродуктов - 6,7, молока и 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 16,1, рыбы и рыбопродуктов - 1,9, сахара и кондитерских изделий - 2,1 кг.

Уровень потреблени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зависит от уровня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Например, у группы с наибольшими располагаемыми ресурсами потребление хлебных продуктов, картофеля, яиц, мясных и 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чем у группы с наи-

меньшими. А по овощам и бахчевым культурам, фруктам и ягодам разница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чем в 2 раз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тата.

###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소년철도 새 시즌 열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휴식공원에서 극동유소년철도가 새 시즌을 열었다. 올해 사할린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이 놀이기구가 63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이 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208만5000여 명이었고 기차는 9만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극동철도 홍보실이 전했다.

시즌 개막은 전례대로 전승기념일에 이루어졌다. 어린 철도꾼들과 고객을 위한 공식 행사는 콤소몰스카야 역에서 개최되었다.

극동철도역 지도자, 주정부·시 두마·사할린철도대학·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차세대 교육에서의 <작은>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 마감에서 아동철도에서 새로 활약하게 될 학생들에게 <어린 철도인>이란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부터 이론교육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40명의 학생들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하계실습교육이 시작된다.

### Детск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 новый сезон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детск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 новый сезон. В этом году самому популярному на Сахалине аттракциону исполняется 63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его услугами воспользовалось свыше 2 млн 85 тысяч пассажиров, а его поезда проехали более 9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ДВЖД.

Открытие сезона по традиции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о Дню Побед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линейка для юн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ов и гостей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 станции Комсомольская.

В выступления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ДВГУП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ыло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то значение "мал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 деле воспитани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заключение торжества вновь принятым на детскую дорогу школьникам были вручены удостоверения "Ю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С этого дня для 40 из них, успешно прошедших теоретическую подготовку, начнется самая интересная часть - летние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Урок 21

### 말하기 대화를 성공의 기회로 삼자

(전호의 계속)

#### Вариант диалога на диалекте Чечжудо

어명: 가이 경 조들리지 말라게.

갑돌: 짜이가 먼저 나 조바부렀쑤다.

어명: 무사들 경험시니?

갑순: 어명, 어로방이 내 책 대껴부린.

어명: 야이 좇지도 안해방 경험샤. 갑돌아 초차취라.

갑돌: 알아수다. 강 봉강오쿠다.

#### Вариант диалога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на нормативный язык

어머니: 그 애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라.

갑돌: 재가먼저 날 꼬집었어요.

어머니: 너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갑돌아 찾아취라.

갑돌: 알았어요. 가서 찾아 올게요.

#### Лексика диалекта Чечжудо

가죽갑타: 가죽모자

걸랭이: 아기를 업는 형겍으로 된 베

가달: 다리

양지: 얼굴

세바닥: 허바닥

두가시: 부부

####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으)로 삼다 "принимать за...", "Ставить в качестве..."

#### Примеры:

작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내년 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Мы разработали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зяв за основу результаты прошлого года.

많은 업적을 높이 평가해 그를 수석 대표로 삼았다.

→ Мы выбрали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делегации по множеству трудовых заслуг.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Достижение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является для России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задач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농어촌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сахалин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립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 합니다!

곡명

- 1. S.Prokofiev Romeo et Juliette «Tanets rytsarei»--
- 2. сахалин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Sakhalinskii detskii simfonicheskii orkestr»
- 2. A.Hachaturyan Aram «Vals» MUZYKA K DRAME M.LERMONTOVA "MASKARAD сахалин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Sakhalinskii detskii simfonicheskii orkestr»
- 3. 2. - 홀스트 생폴 <G. Holst - st.paul's suite> KYDO( Korea Young Dream Orkestra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 4.. - 바르톡 루마니아 댄스 <B. Bartok - Romanian Folk Dance> -- KYDO( Korea Young Dream Orkestra)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 5. Mozart requiem (모차르트 레퀴엠)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립오케스트라.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сахалин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KYDO( Korea Young Dream Orkestra) 농어촌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приглашение**

Третий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молодёжн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Сахалинским дет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м камерным городским оркестром

**2017년 제3회 KYDO 희망나눔 сахалин 청소년교류 연주회 & 유즈노сахалин시립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  
В рамках общегородск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5. 26. 2017. Fri. 19:00  
Конгресс холл «Столица»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비즈니스 센터

ASIANA AIRLINES 한진해운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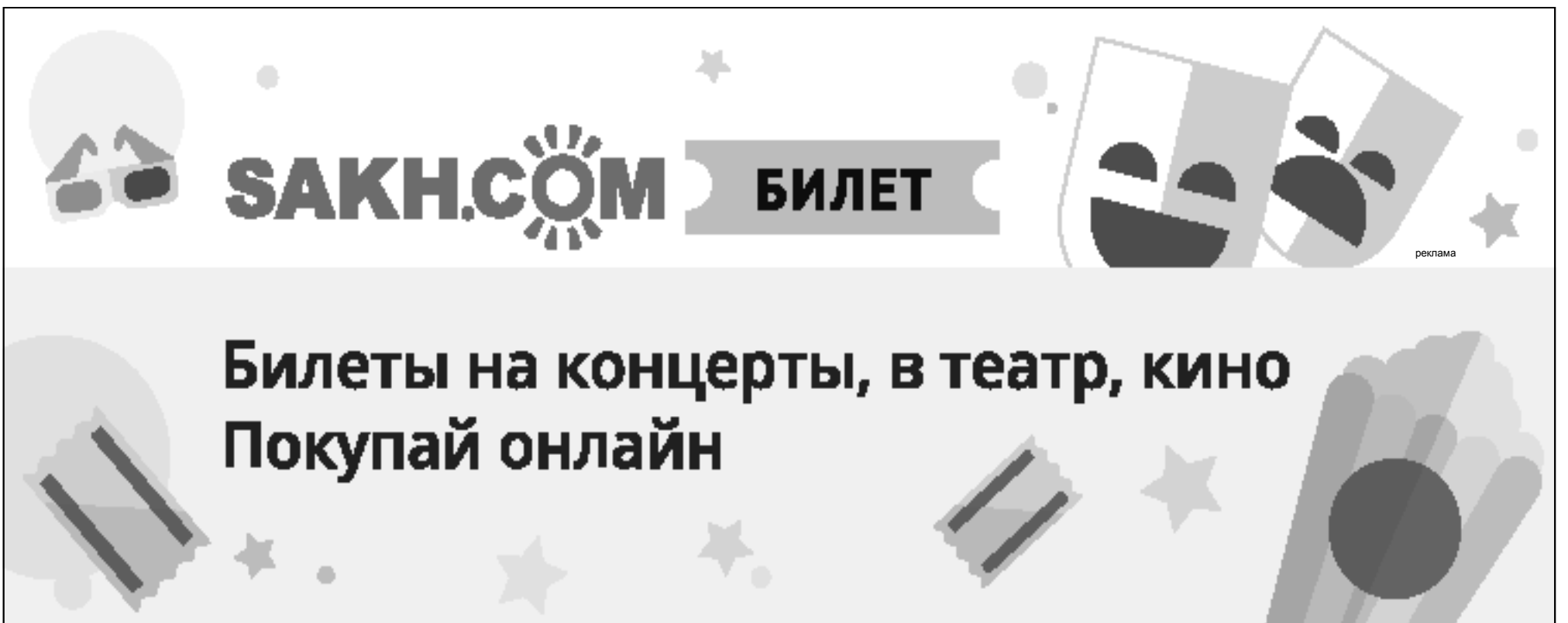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SAKH.COM B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